

특별기획

군산시, 규제혁신 종합계획 마련

군산보건소, 무료의치 사업 실시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는 차이의 결손으로 저작기능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구강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노인 무료의치(틀니)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의치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시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무료로 의치를 보급해 구강건강을 최고의 수준으로 증진시켜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전라북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총 65명에게 7,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8일까지이며 읍·면·동 사회복지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구강검진 및 교육을 받고 면접을 통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시술을 받게 되며, 생애 한번이 지원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시 방역초소 방문 근무자 격려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연식)는 제200회 임시회가 개최중인 가운데 고병원형 시의 관내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등 비상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16일 시 방역초소를 방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집행부로부터 우리 지역의 시 방역 추진 대책 상황과 향후 대응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여산면 두여리 방역초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 방역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근무자들에게 격려품을 전달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익산=정왕원기자

군산, 설 연휴 쓰레기 특별 관리대책

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내달 1일까지 명절 연휴기간 배출 쓰레기로 겪는 불편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특별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설 연휴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이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와 민원처리를 위해 시청내 상황실과 처리반을 운영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앞서 공무원 유관기관, 시민 등이 대대적으로 참여해 주요도로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 다중집합장소, 터미널, 공원, 재래시장 등에서 설맞이 대청결활동과 쓰레기 수거·처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공무원 규제역량 강화 행정시스템 개선 등 추진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폐쇄 위기 등에 따른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 직원의 행정마인드 제고와 추진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시민·기업 공감형 규제행정 체질개선을 골자로 한 2017년도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핵심 골자는 ▲공무원의 규제역량 강화와 행정추진시스템 개선 ▲시민·상공인 체감형 불면규제 발굴 역량집중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 만들기의 내실화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개선 등의 자치법규 개선이다.

시는 소극행정 해법을 위한 내부 평가시스템의 평가항목 추가와 평가방식의 개선으로 성과와 인사우대와 조

극행정에 대한 강력한 조치방안을 마련해 부시장 중심의 책임행정과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민과 소상공인이 공감하는 규제 발굴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일선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발로 뛰는 소용행정과 민생 밀접 분야의 규제 발굴 보고체계를 강화한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 만들기'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종전 '친기업 1인 2사 후견인제'의 처리절차를 단축하고 후견인 책임처리제를 강조해 신속한 기업 고충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원 후견인제의 실질적인 운영과 인·허가 복합민원의 사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민원행정 추진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기함과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시는 지난해에 이어 제도적 규제개선 위한 자치법규 개정에도 한층 더 총력을 기울일 계획인 가운데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정부 4대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법규개정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향상을 위한 법규개정 ▲위임조례 적기 개선 ▲법제처 규제개선 우수사례 50선 법규개정 등을 집중 추진한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올해는 지속되는 대·내외적 위기를 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더욱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며 "특히 생산과 투자를 저해하는 중앙과 지방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기업에 활력을 주는 현장중심의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규제행정 추진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 프라임 사업단

현판식·사업추진위원회 개최

성공적 활동 다짐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단 현판식을 갖고, 사업단의 성공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최근 대학본부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김도중 총장을 비롯해 대학본부 보직자와 프라임 사업 추진위원으로 위촉된 김진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현재 익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약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판식에 앞서 프라임 사업 제1차 사업추진위원회가 개최됐으며, 배종향 단장의 프라임사업 소개와 1차년도 사업현황 보고 등이 진행됐다.

원광대 프라임 사업단은 지난 1차년도에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재학생 장학금, 교육기자재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 인문학진흥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했으며, 프라임인문학진흥사업단은 지난해 11월 '익산학 심포지엄'을 개최한데 이어 12월에는 익산시청과 공동으로 '익산학 정립을 위한 콜로키움'을 추진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정왕원기자

김도중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학 4.0시대를 맞이하여 프라임 사업을 통해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학사구조 개편과 교육과정 혁신, 진로 및 창·취업 인재양성 등 사회수요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최초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고시

군산시 최초로 공동주택 금연아파트가 지정·고시 됐다.

군산시는 도현해나지오아파트와 나운차현대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일 국민건

강중집안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도 금연규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관내 2개 아파트가 신청을 통해 군산시 최초로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됐다.

이들 금연아파트는 6월 30일까지 계

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 보건소는 도현해나지오, 나운현대3차아파트에 금연표지판과 현수막, 금연스티커를 부여하고 주민들의 금연에 도움을 주고자 이등금연클러닉을 운영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보건소, 올해 달라지는 보건사업 발표

군산시 보건소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고위험 임신부지원, 저소득층 기자귀·조제분유 지원이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2016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단태아 10일, 쌍태아 15일,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20일로 제한되었던 서비스가 2017년 단태아 5~15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쌍태아 돌태아 10~20일, 셋째아이상 15~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15~25일로 계약체결시 이용자가 단축, 표준 연장형으로 서비스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또 고위험 임신부 지원(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임신중독증)은 지난해에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로 고위험 임신부로 진단 받고 입원하여 치료받은 입원치료

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50%를 제외하고 90%지원 해왔다.

올해부터는 신생아를 포함해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10%를 개인부담하게 되어 50만원 미만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층 기자귀·조제분유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후 0~24개월까지 확대하고 기자귀지원대상중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 기자귀 6만4,000원, 조제분유 8만6,000원을 지원한다. 대상자 또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양육영아까지 추가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모자보건계(☎460-3239)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접수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영농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고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해 군산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7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내달 3일까지 신청 받는다.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친환경 명품농산물 안전생산 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 현장수요 신기술 확대보급 등으로 경쟁력 있는 작목을 육성하고자 5개 분야 27개 사업에 걸쳐 13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시범사업으로는 지도운영분야 신기술창조농업 등 2개사업, 지역활력분야 전통생태자원활용기술시범 등 5개사업, 식품가공분야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등 2개사업,작물환경분야 식량작물 수출생산 단지지원 등 1개사업, 소득작목분야 마늘주

야재배 기술시범 등 7개사업이다.

이밖에도 시는 시범사업과 연계해 토양분석을 통한 토양비치량사발급, 유용미생물 EM 보급 확대, 쌀품질 검사, 유해물질 분석 등 친환경농업실현 구현을 위한 과학영농실 운영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군산농업 발전과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사업신청서는 읍면동사무소와 읍면농민상담소에 비치되어 있고, 사업내용과 신청요령은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신청안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www.gunsanfarm.go.kr>)에서 사업별 지원기준과 절차 등을 확인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농업시설 지적측량수수료 한시적 감면

익산시는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30%를 감면 시행한다.

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농업기반시설,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현황 측량, 분할측량 실시 등이며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현행 지적측량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필지 수, 면적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859-5847) 또는 합영출장소(☎859-4686)에 문의하면 된다.

/익산=정왕원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군산시 GUNSAN CITY